

# 박지현 “586 용퇴” 거둬 압박... 윤호중 “개인차원의 입장”

민중, 쇠신싸고 내분 심화... 지방선거전 전열 ‘흔들’ 이재명, 손으로 목 긁는 동작하며 지지호소 논란 이준석 “정치를 우습게 아나... 제정신 아닌 행동”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쇠신을 위해 586용퇴론을 주장했지만 당내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오며 민주당은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인선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손으로 목을 긁는 듯한’ 행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해 여당의 비판을 받았다. 25일 박 위원장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며 “이제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다.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출마도 약속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당 쇠신을 위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온정주의와 결별하고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민주당이 쇠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음소전락밖에 없다. 서울·경기·인천 시도지사 후보와 선대위원장이 공동으로 반성과

성찰, 당 개혁과 쇠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고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의 쇠신 요구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합동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당의 쇠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기에 앞으로 당의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전날(24일) 박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제안에 대해서도 “개인차원의 입장 발표로 안다”며 당 입장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586 용퇴론에 대해) 지금 따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 지금 당은 아주 비상한 선거 체제에 돌입해 있다”며 “선거 앞두고 불리하거나 어떤 반성하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대문화공원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공식 추도식에 야당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박미나 기자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께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후보의 행동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자신의 SNS에서 인선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가 손으로 목을 긁는 듯한 행동을 하며 ‘정치생

망’을 언급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두고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계양 주민의 관점에서 계양을 발전시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 생명 운운하며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이 후보는 지역구 유세에서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 끝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손으로 목을 긁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조영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선거 형세에 대해 “새 정부 출범하고 바이든(미국 대통령) 방한하고 허니문 기간 동안에 정부여당 중심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 가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리한 형국”이라고 분석하며 “저는 애초부터 지금(이재명 후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 경찰, 치안정감 7명 중 5명 물갈이... 청장 임명 전 이례적 인사

출신 지역과 입직 경로 등이 고르게 안배됐다는 평가 이번 승진자 중 차기 경찰청장 임명 가능성도 제기돼

정부가 경찰청 인사를 단행하며 치안정감 7명 중 5명을 교체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송정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경찰청장 임명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먼저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이번 승진자 가운데 7월23일로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자가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후보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나 임명할 수 없다. 경찰

공무원법 15조는 경찰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경찰 공무원 중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승진 내정자들은 김 청장의 후임 후보가 된다. 이날 승진 내정된 인사들의 보직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치안정감에 맡는 보직은 경찰청 차장, 서울·인천·경기남부·부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국가수사본부장이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되지 않은 치안정감은 2명으로,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수본부장과 다른 한 명만 직급을 유지하게 됐다. 잔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유진규 인천경찰청장과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있다. 이번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는 출신



경찰청이 치안정감 5명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24일 단행했다. 경찰청은 이날 송정에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송정에·윤희근·우철문·김광호·박지영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경찰청 제공

지역과 입직 경로 등이 고르게 안배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북 정읍 출신인 송 기획관은 승진자 중 유일한 여성이다. 송 기획관은 1981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들어와 충남경찰청 여성청년계장, 대전 중부경찰서장 등을 거쳐 2018년에 충청권 최초의 여성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역대 세 번째 여성 치안정감이기도 하다. 충북 청주 출신인 윤 경비국장은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하고 1991년 경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충북경찰청 정보3계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경북 김천 출신의 우 수사기획조

정관 역시 경찰대 7기 출신으로 경북 상주 경찰서 서장,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거쳐 지난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맡았다. 울산 출신인 김 청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04년 경정 특채를 통해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정보1과장,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 해남 출신의 박 청장은 41기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 1993년 경위로 입직해 담양경찰서장, 경찰청 교육·피해자보호 담당관,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지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 ‘심야 차량 시위’ 자영업 대표 검찰,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지난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자영업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단체 대표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서부지검은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호소 경위, 대면접촉이 적은 시위 방법 선택,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이 적은 야간 시위, 물리적 충돌 없는 해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정부의 집합금지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차량시위가 미신고 집회라며 김 씨



경찰은 지난해 7월에 ‘심야 1인 드라이브루 차량집회’를 주도한 김기홍(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을 마포 경찰서에 소환했다. 남중수 기자

를 긴급해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정에 차량에서 하는 1인 시위를 했는데 이마저 할 수 없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라며 “약식기소에 대한 송달이 오는 대로 정식 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큐원

# 밀가루도 역시 큐원입니다!

큐원 밀가루는 품질이 균일하고 가공안정성이 우수합니다.

The Best Solution  
**ServeQ**  
삼양사의 식자재 유통 전문 브랜드, 서브큐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삼양사  
고객상담실 080-023-3399  
www.serveq.co.kr